

구제역, 유희 알면 해결된다

불자 먼저 육식 최소화... 가축행복권 보장해야



서울 도선사는 1월 13일 구제역 및 조류독감 확산방지 및 희생 가축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1월 13일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축은 150만 마리에 이른다. 구제역 살처분과 백신접종으로 지출된 정부예산은 2조원대로 추산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 될 지는 미지수다.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도 이후부터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목으로 구제역 인근에 있는 전염되지 않은 가축들을 몰살시켰다. 하지만 구제역을 완전히 막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천도제 이상의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

#구제역, 인간의 욕망과 위기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이윤만을 추구하며 비위생적 환경에서 초식 동물인 소에게까지 육류 사료를 먹이는 잔인함을 보이고 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의 생태철학>에서 "불결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스트레스와 분노의 독기를 품는다. 우리는 삼독의 하나인 '분노'에 가득한 고기의 살점을 맛있게 먹고 그 인간이 다시 욕망과 투쟁의 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식량공급과 경제적 이윤을 위해 일반적으로 희생하는 기계적 존재로 전락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신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 혹은 동물에 대한 지배권이나 관리권을 부여받은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인간도 유희의 수레바퀴를 떠돈다고 봤다. 그래서 불자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이 바로 살아 있는 존재(숨 쉬는 존재)를 죽이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 대안은 있는가?

오계의 첫 번째 계율은 불살생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불교도는

많지 않다. 일상에서 실현 가능한 개인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처님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보다 파리를 때려잡는 살생행위를 더 나쁘게 봤다. 대승불교에서는 채식주의를 의무로 두고 강조했다.

서재영 연구원은 식육의 관행을 묵인한다면 전 세계에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의 잔혹한 사육과정과 도축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육식을 줄여나가는 최소한의 노력이 불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외곽 폴리페이스 농장에서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대하는 새로운 축산 형태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폴리페이스 농장에서 동물들은 모두 토양에너지로 신선하고 성숙한 풀을 먹고 자란다. 농장주 조엘은 동물의 삶의 모든 단계를 마지막까지 자연과 동물에 맞도록 관리한다. 그는 동물이 동물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도살시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 방법을 선택한다.

모두 채식주의자가 되자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경제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모든 축산업자가 집중가축사육시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이나 임시방편의 대응책이 아닌 유희사상에 근거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상언 기자

구제역 확산에 사회복지 '주춤'

재가 서비스 중단 위기... 대응책 마련 고심

불교계 사회복지기관들이 연일 확산되는 구제역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들이 사회복지사들의 마을 출입 자제를 요청하면서 일부 서비스가 중단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기관들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 방문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거 어르신에게 밀반찬 및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마을에 출입하지 주민들은 외부 오염 물질이 전파될 것을 두려워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 사회복지기관들이 연일 확산되는 구제역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 요청으로 출입하지 못하는 마을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복지관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복지관 측에서는 소독을 강화했다며 마을 출입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보지만 피파 흘러 키운 소와 돼지의 안전을 우선하는 주민들은 완강했다.

지역 축제 일정에 맞춰 캠페인을 준비한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도 구제역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당초 이 기관은 국내 대표적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를 통해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화천군이 산천어 축제를 1월 14일 전격 취소하면

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파라밀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인근 일죽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재가서비스를 4일 잠시 중단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출입 자제를 요청해온 것이다.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 3명의 주간보호 대상자와 12명의 밀반찬 배달 서비스 대상자들이 일죽면에 거주하고 있다.

이병호 파라밀 재가노인복지센터 소장은 "서비스가 중단된 동안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하루 빨리 구제역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특별기고

천도재, 중생과 하나되는 길

생명이 있는 것은 여섯 가지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어간다. 이른바 육도윤회(六道輪廻)이다. 육도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인간은 현세(現世)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 죽은 뒤에 다시 여섯 세계 중 한 곳에서 내세(來世)를 누리게 된다. 윤회한다는 것은 결국 괴로움의 연속이다.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은 불자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자들은 소를 우보살(牛菩薩)이라는 호칭으로 예경의 마음을 담아왔다.

시골에서 자란 장년층은 어릴 때 소를 몰고 들판에서 소꼴을 베며 쇠죽을 끓이던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다. 소는 농사의 또 다른 일꾼이며 살림 밑천이고, 친구며 가족이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직전의 소에게 마지막 여물을 주며 눈물짓던 시골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은 소를 가족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있다. 구제역으로 150여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돼 매장됐다.

가축들의 냇과 상처받은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봉행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불교의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천도재는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다. 천도재를 통해 희생된 가축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아울러 시름에 잠긴 가축농가 주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무해 주어야 한다. 종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은 중생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유예태 이사(죽음교육상담협회 이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을 스님과 전시회 관계자들이 4대강 답사 사진을 손에 들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지을 스님은 조계사 신도회관 공터에 '4대강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상실 전시'를 마련하고 1월 14일~3월 4일까지 4대강 답사와 지을 스님이 촬영한 낙동강 사진 등을 전시한다.

박기범 기자

"대법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황우여, 법조계 기독교인서 망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전 국가조찬기도회장)이 1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법조계 기독교인자 모임 '애중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종교편향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인방송의 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황 의원은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꼭 대법관 한 분을 초청해 기도를 부탁해 왔는데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러웠다"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형식 국무총리 등 유력인사를 포함해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가족 등 300여 명이 모였다. 현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에까지 종교편향이 미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 우려를 낳고 있다.

노덕현 기자

대불청, 부산 범어서 방화범에 현상금 1000만원

구랍 15일 발생한 부산 범어서 천왕문 방화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1월 6일 성명서를 통해 범인 검거의 결정적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아은 기자

현대불교신문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한국불교기지협회 공동캠페인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법을 펴시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서력기원)는 기독교 성인의 탄생을 기준으로 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불자들이 아무생각 없이 불교행사와 서식에 서기를 넣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불기 2555년을 맞은 올해 온 불자가 불기를 사용해 불자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세웁시다.

- 사찰 내부 문서나 서적 포스터 홍보물 현수막에는 예) 2011포교전진대회 = 2555년 포교전진대회
- 사찰 밖에서나 해외에서는 예) 2555(2011) 불교행사 협조청

2555(2011) korea buddhism week (한국불교주간) - 서기를 뺀 불기

일시 2011.02.25(금) ~ 03.01(화) **5일간**

장소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주최_BBS 광주불교방송, 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 (주)엑스퍼트
후원_대한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 본사,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광주-전남전법단

참가문의 2011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사무국 062-383-6322

2011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International Buddhist Culture & Industry Exhibition 2011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한국 서남부의 중심도시인 광주에서 우수한 호남의 전통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2011년 02월 25일부터 03월 0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1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2011년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전시구성

-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관
- 지자체 관광 및 특산품 홍보관
- 불사용품, 불교용품, 생활용품, 차, 식품
- 사찰건축, 불교장례 등 불교관련 용품 및 산업 품목

문화행사 (예정)

- BBS 광주불교방송 개막축하쇼
- 6교구본사 큰스님 법문 강연
- 국제관 개실 (티벳,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 선암사 영산제 / 미항사 수륙제 등